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25년 9월 조사 —

2025년 10월 3일

주식회사테이코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https://www.tdb.co.jp/report/economic/#trends>

국내경기는 소폭이지만 4개월 연속 개선

~ 무더위 특수는 일단락 되었으나 호조인 건설수요 및 디지털 투자 확대, 여행관련이 상승시켜 ~

(조사대상 2만 5,546사, 유효회답 1만 554사, 회답율 41.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와 포인트

1. 2025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3.4로 소폭이지만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특수의 일단락 및 기업수익의 하락 압력이 일부에서 강해졌으나, 호조인 건설수요 및 디지털 투자 확대에 회복하여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의 행방에 주목하며 보합 경향으로의 추이가 전망된다.
2. 『부동산』 『건설』 등 5개 업계에서 개선된 한편 『소매』 『제조』 등 4개 업계에서 악화되어 체감경기가 이분화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5개월 연속 개선된 한편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은 악화되어 규모간격차는 조사 개시 이래 최대를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시코쿠』 등 5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등 3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3. [이번달의 토픽스] 건설수요에 관하여 기업으로부터는 기관민간의 설비투자 외에 가격전가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 2025년 9월의 동향 : 개선경향 >

2025년 9월의 경기DI는 전월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3.4로 소폭이지만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무더위 특수의 일단락 및 기업수익의 하락도 있었으나, 호조인 건설수요 및 디지털 투자의 확대에 회복하여 상향 경향이 계속되었다.

9월은 공공공사의 발주증가와 각지의 재개발이 건설관련 체감경기를 상승시켰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과거최고치를 갱신한 가운데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의욕도 견조했다. 월후반은 좋은 날씨 덕에 개인대상 서비스가 상향하였다. 한편 무더위 특수의 일단락과 함께 원재료·물류코스트의 높은 가격이 계속되었다. 사업단가 상승의 판매단가 전가가 다시 늦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수익으로의 하락 압박이 늘기 시작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경향 >

향후는 실수령 수입 개선 등 실질구매력의 회복을 통한 개인소비의 향상이 초점이 될 것이다. 견조한 여행 수요는 숙박 및 외식 등의 관련업종에 파급하여, 저변 확장도 기대된다. AI관련 설비투자도 순풍이다.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기업수익의 하락 압박 및 인력부족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행(日銀)의 이자 인상 및 미국의 이자 인하, 트럼프 관세의 영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의 행방에 주목하며 보합 경향으로의 추이가 전망된다.

